

국민 10명 중 6명 모병제 도입 찬성



▲ 한국 국민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 사진=shutterstock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이날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와 함께 자사 국민패널 1천12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8.8%였다.

모병제에 찬성하는 주된 근거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

방력을 강화하기 때문' (32.9%),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역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 (21.8%) 등이 제시됐다.

모병제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남북 대치 상황' (33.4%)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 (28.4%)이 뒤를 이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6%가 200만 원 미만을 들었고 39.3%는 200만~25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에서 모병제 찬성 비율이 높았다고 KBS는 밝혔다.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52.8%로 과반을 넘겼고 반대는 35.4%였다. 특히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은 남성(66.3%), 보수 성향(56.5%), 군필·수행 중(66.7%)이었다.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촉발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과 관련해서는 반대가 47%로 찬성(44.7%)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KBS 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으로 이뤄졌고 주민등록통계(2020년 8월) 기준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에 의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외국인 노동자 '귀한 몸' ... '빠가기 경쟁'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길이 막히면서 어민들이 일손을 찾지 못해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어민들 사이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서로 데려가려고 임금을 두배로 올려주며 빠가기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KBS'에 따르면 어업 일손 부족은 한국인 노동자 구인난에 겹쳐 배정받은 외국인노동자들도 입국을 하지 못하면서 심화됐다.

경남 통영시 삼덕항을 기지로 문어잡이 어선을 운영 중인 정봉성 선장은 "외국인노동자 두 사람을 배정받았는데 그 인원이 안 들어옵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배를 안 타려고 해요. 배를 안 타면 인력이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배를 처분하려고..."라며 인력난을 호소했다.

어업 분야 비전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인은 지난해 3,520명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탓에 올해 3월 이후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어민들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인력 수급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고수익 선단이나 업체는 통상 월 250만 원 수준이던 임금을 2배 수준까지 올려 인력을 끌어갈 정도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허용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고용법상에 취업 활동 기간이 딱 법으로 제한돼 있어서 법상 허용하는 기간만큼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0% 넘게 줄어든 19만 9천여 명으로, 2014년 상반기 이래 처음으로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마스크 수출 제한 폐지·규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23일부터 마스크 수출총량제를 폐지하고 수출을 전면 허용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에선 생산량의 50%를 초과해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출총량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고시 개정으로 보건용으로 쓰이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대한 수출 제한 규제가 폐지됐다. 이전까지는 2개월 평균 생산량의 15%만 수출할 수 있었다. 또한 텐탈용, 비말차단용 등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도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해야 하는 사후신고제도와 20만 개 이상 판매 시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했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한 식약처는 마스크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 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 (의료기기)로 신설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KF 기준과 N95가 기준 규격이 달라 수출시장에서 국내 생산 마스크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 의견을 반영해 국산 마스크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월 중으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신속 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정부가 마스크 수출 제한을 폐지했다. 사진=타운뉴스DB



REDPOINT REALTY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p>로스 알라미토스</p> <p>방4 화3 2,590sq 최고학군 위치 동네 인접 프라이웨이, 상가, 부엌, 화장실 완전 리모델, 아늑하고 잘 정비된 정원 새집과 같음</p> <p>\$795,000</p>	<p>애나하임 6유닛</p> <p>방2/1 화1 대지 9,148 sq 월 인컴 약 \$8,545</p> <p>\$1,399,000</p>	<p>터스틴 8유닛</p> <p>방3,2 화2,1 월인컴 약 \$13,520 파킹 8대</p> <p>\$2,595,000</p>	<p>터스틴 4유닛</p> <p>방3/2 화2/1 월인컴 \$7,198</p> <p>\$1,425,000</p>	<p>로스 알라미토스</p> <p>방3 화2 좋은 학군 건평 1,623sq</p> <p>\$936,000</p>
	<p>애나하임 단층집</p> <p>방3 화2.5 1,751sq 최고학군 좋은동네 넓은 뒷마당, 많은 과일나무, 교통편리 공원, 상가, 차고뒤에 방, 화장실 있음 인컴 창출 포텐셜</p> <p>\$735,000</p>	<p>로스 알라미토스</p> <p>방4 화2 좋은 학군 건평 1,844sq</p> <p>\$999,000</p>	<p>애나하임 4유닛</p> <p>방2/1 화1 월인컴 \$7,912 파킹5대</p> <p>\$1,295,000</p>	<p>부에나 파크 3유닛</p> <p>방2 화1 월인컴 약 \$4,400</p> <p>\$850,000</p>	<p>코스타 메사 3유닛</p> <p>방2/1 화1 부엌, 화장실 리모델 월인컴 약 \$4,700</p> <p>\$1,090,000</p>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